아침햇살 마시고, 서울 핫도그 먹고… 베트남 홀린 K-푸드

오리온 베트남 올 영업익 4.6%↑
대상덕비엣 인스턴트 소시지 등 호평
웅진식품 첫 수출 대비 10배 올라

베트남고객이 현지 오리온 스낵을 구매하고 있다. /오리온

베트남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한국 식품으로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은 1억명에 육박하는 인구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포스트차이나'로 통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베트남은 향후 10년 내 중산층 소비자 계층이 360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중산층 소비자 계층이 2000년에는 10% 미만이었으나 지난해 기준 40%까지 증가했으며, 오는 2030년에는 75%에 다다를 전망이다. 여기에 인구 중 절반가량이 40대 이하로 소비능력 성장세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이다.

오리온은 베트남에서 사랑받는 기업 중 하나다. 오리온 베트남은 올해 3분기 매출액 1176억원과 영업이익 219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4%, 영업이익은 4.6% 늘어났다. 환율 효과에 따라 회계 수치상으로 해외 성장이 둔화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해외 판매가 크게 부진하지 않으며 향후 현지 생산 라인 증설 등을 통해 해외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리온은 베트남에서 경쟁사 대비 우월한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젤리와 쌀과자, 양산빵 등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남은 4분기에 베트남 최대 명절인 '뗏'을 대비한 선물용 기획제품을 출시해 판매대를 선점하고 대량 구매 수요가 큰 B2B(기업 간 거래) 판매도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치민과 하노이 공장의 증설을 착실히 추진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품 회사 ㈜대상은 2016년 소시지 가공업체 '득 비엣'을 인수, 지난해 사명을 대상덕비엣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대상덕비엣에서 판매하는 '서울 핫도그'를 비롯해 햄 슬라이스, 인스턴트 소시지 등은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2022년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베트남 식품'에 서울 핫도그가 2위에 이름을 올렸을 정도다.

대상은 상승세에 힘입어 베트남 육가공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소시지 본고장 독일에서 착안한 제품 2종을 새롭게 론칭, 베트남 내 종합식품회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상덕비엣은 지난달 15일 베트남에 치즈 소시지, 부르겐부르스트 소시지 2종을 출시하고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제품 출시로 대상덕비엣의 베트남 시장공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에 소시지 소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한국의 앞선 기술력과 위생관리 시스템 덕분에 선호도도 높다.

웅진식품의 대표 스테디셀러 '아침햇살'은 베트남에서 프리미엄 K-음료로 통한다.

베트남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500ml와 1.5L 페트병이다. 500ml 기준 2021년 756만 병, 2022년 1021만 병 판매되며 판매량이 90% 증가했고, 첫 수출이 시작된 2015년 약 120만 병을 판매한 것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800만 병 이상 팔리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7000만 병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중이다. 지난해 전체 판매량이 2021년 대비 135% 성장한데 이어 올해 9월까지 이미 지난 해의 판매량을 넘기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출시한 '아침햇살 흑미'도 관심을 모았다.

아침햇살의 이러한 성과는 한국 교민이 즐겨 찾는 코리안 마켓이 아닌 베트남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로컬 마켓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 더욱 눈길을 끈다. 아침햇살은 베트남 현지 Aeon, Winmart, Big C, 메가마트, GS25, 7-11, 패밀리마트 등 대형마트와 중소형 소매점에 입점돼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대웅제약 '엔블로' 771억 규모 수출계약

러시아 파마신테즈와 체결

전 세계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국산 신약 '엔블로'가 입지를 넓히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1일 러시아 제약기업 파마신테즈와 '엔블로(성분명 : 이나보글리플로진)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파마신테즈는 러시아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제약사로,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전역에 유통·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엔블로는 러시아를 비롯해 독립국가연합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등 총 6개국에 진출하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계약 규모는 기술료를 포함해 약 6000만 달러(771억원)다.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당뇨병 의약품 시장은 지난 2021년 기준 약 9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엔블로와 같은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 2(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지난 2019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32%를 기록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이랜드이츠 피자몰, 연말 맞이 신메뉴 출시

피자 3종·샐러드바 9종 선봬

이랜드이츠 피자몰 연말 맞이 신메뉴. /이랜드

이랜드이츠의 피자 뷔페 브랜드 피자몰이 크리스마스 및 연말 시즌을 앞두고 오는 오는 7일부터 신메뉴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메뉴는 '연말 파티' 콘셉트로 파티에 어울리는 피자 메뉴 3종과 샐러드바 메뉴 9종을 새롭게 준비했다.

신메뉴 피자 3종은 ▲엣지까지 맛있게 즐기는 포테이토 치즈 바이트 피자 ▲쫄깃하고 짭짤한 페페로니를 올린 4겹 페페로니 피자 ▲크림치즈의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가 가득한 아몬드 크림치즈 피자로 구성됐다.

샐러드바의 주요 메뉴는 ▲로제 크림 넘적 당면 ▲할라피뇨 마요 치킨 ▲그릴드 베지터블 ▲콘 크림수프 ▲치즈 포테이토 수프 등 추운 날씨에 즐기기 좋은 요리와 함께 ▲아이스 뱅쇼 ▲체리 초코브라우니 ▲레트로 크리스마스 케이크 ▲ 캐러멜 초코칩 아이스크림 등 총 40여 종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삼성웰스토리 "글로벌 식음 솔루션 리더로"

창립 10주년 맞아 기업 비전 선포
해외 사업 확대해 경쟁력 강화

1일 분당 본사에서 열린 삼성웰스토리 창립 1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에서 삼성웰스토리 정해린 사장이 새로운 기업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

단체급식 및 식자재유통 전문기업 삼성웰스토리는 지난 1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식음 솔루션 리더'라는 새로운 기업 비전을 선포했다고 3일 밝혔다.

삼성웰스토리는 2014년 매출 1조 6127억원을 달성한 이후 연평균 6.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올해 2조9000억원대 매출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단체급식 사업은 2021년 급식시장 개방 여파 속에서도 2012년부터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식자재유통 사업은 16%의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지난해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창립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

해외사업의 경우 2012년 중국, 2014년 베트남에 진출했으며 지난해 기준 해외매출 3206억원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왔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삼성웰스토리는 지금까지 쌓아온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급식과 식자재를 제공하는 식음서비스를 넘어 식음 벨류 체인 전반에 걸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며, 식음산업의 문화를 리딩하는 '글로벌 식음 솔루션 리더'로 진화해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식자재유통 사업은 국내 유통을 넘어 한국과 제 3국간의 식자재 수출입을 중개하는 글로벌 식자재유통을 내년부터 본격화해 식량 인플레이션에 따른 글로벌 공급 이슈 속에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모색한다.

해외 급식사업은 한국 기업들의 진출 증가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미국과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중부 유럽 등을 대상으로 신규 진출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 베트남 현지에 완공 예정인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기존 진출 국가에서의 사업 경쟁력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급식 사업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식음 트렌드와 푸드테크 발전에 발맞춰 개인화, 지능화, 자동화된 형태로 식음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운영모델을 도입한다.

내년 완공되는 '센트럴키친'을 시작으로 상품개발, 물류시스템, 운영모델 등에 있어 산업 전반을 리딩할 혁신도 이어간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송릿다 부사장, 글로벌R&D센터장 임명

팜젠사이언스 신약 개발 박차

팜젠사이언스는 지난 1일 송릿다 부사장(사진)을 글로벌R&D센터장으로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송릿다 센터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 툴루즈3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송 센터장은 지난 1996년부터 신약 개발 경험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팜젠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소화기 신약 개발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030년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현재 구축된 신약 파이프라인 외에 자가면역 질환, 퇴행성 질환, 통증 분야 등에서도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송 센터장은 ▲신약 ▲개량신약 ▲글로벌 사업 등 세 가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라엘, 올리브영 어워즈 기념 기획팩 선봬

유기농 순면 커버 생리대

우먼 웰니스 케어 브랜드 '라엘'이 여성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제품을 선보이며 여성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엘은 오는 6일까지 올리브영에서 '어워즈 한정 기획팩'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라엘은 '2023 올리브영 어워즈'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어워즈 한정 기획팩'을 '유기농 순면 커버 생리대' 중형과 대형으로 구성했다. 앞서 라엘의 '유기농 순면 커버 생리대'는 '2023 올리브영 어워즈' 여성 건강을 위한 W케어 부문에서 2위로 뽑혔다. 지난 2022년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이청하 기자